

이봉련, '갯마을 차차차' 종영 인터뷰... "인교진, 참 좋은 배우"

'화정 핏집' 주인 여장부 '여화정'

남편 이규회도 부러워하며 응원

"갯마을 차차차'의 여화정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 넣어줬죠. 떠나보내 아쉽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요."

tvN 토일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화정 핏집'을 운영하며 의미 있고 화통한 여장부 '여화정'을 연기한 배우 이봉련은 "즐거움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뜨거운 여름이었다"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지난 17일 종영한 '갯마을 차차차'는 현실주의 치과의사 '윤혜진'(신민아)과 만능 백수 '홍반장'(김선호)이 짝내 사람네를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힐링 로맨스를 그렸다.

이봉련은 극 중 공진에서 나오 자란 토박이로 공진동 5동 통장 여화정 역을 맡았다. '화정 핏집'을 운영하며 혜진의 집과 치과의 건물주이기도 하다. 소꿉친구 '장영국'(인교진)과 결혼했지만 이혼했고,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은연중 뒤에서 챙겨주는 모습으로 극의 재미를 더했다.

◆'여화정 옷 입으면 자부심 확 생겨...달고 싶은 멋진 사람'

최근 화상으로 만난 이봉련은 "여화정을 사랑해주고 많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방송 중 이렇게 사랑받고 직접 피드백을 받는 건 처음이다. 저를 '화정 언니!'라고 불러주기도 하

더라. 반응을 뜨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화정이가 사랑받는 이유는 공감이지. 이혼하고 혼자 아들 이준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공감,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여장부 기질이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분명한 여자이고 싶고, 수줍은 면모도 있죠. 그런 매력들이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는 여화정을 연기하며 설득력 있게 표현하려 했다고 밝혔다. "여화정으로서 말을 내뱉었을 때, 설득력을 가질까 고민이 많았다"며 "제가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고, 화정이라는 다른 삶을 살기에 걱정도 했다. 배우는 경험자가 많을수록 표현이 넓어지지만,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다. 직·간접적 경험, 상상력으로 해내며 설득력을 갖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봉련의 성격은 여화정과 다르지만, 그와 닮고 싶다고 했다. "화정은 말하는 데 거침없고, 생각하는 걸 실천에 옮기죠. 자랑 다르지만 참 괜찮은 멋진 사람이지요. 촬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말투가 아직 남아 있어요. 화정이의 옷을 입으면 자부심이 확 생겨요. 그 착장과 머리스타일, 가방을 매는 순간 갑자기 부심이 나타나죠.(웃음)"

이혼한 전 남편 장영국 역의 인교진과의 케미도 돋보였다. 그는 "참 좋은

배우"라며 "개인적으로 팬심이 있다. 제가 시청자로서 드라마를 볼 때 제일 기다리는 장면이 장영국 장면"이라고 미소 지었다.

"인교진씨 연기는 새롭고 재미있어요. 코믹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영국을 연기하는 거죠. 역할과 분리해서 인교진씨를 보면 완전히 달라요.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케미도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영국과 아들 이준이, 가족 세 명이 함께한 신 모두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드라마에서 그동안 서사가 깊은 역할이 많이 없었어요. 화정이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기운이 있었어요. 화정과 영국의 로맨스를 떠나 이 커플의 가장 행복한 결말은 아이에게 가족을 다시 만들어주는 자체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화정은 장영국, '유초희'(홍지희)와의 삼각관계를 형성했다. 영국은 첫사랑인 초희와 재회해 설레하지만, 단박에 거절을 당했다. 알고 보니 초희는 과거에 화정을 좋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초희는 저를 충실히 사랑하고, 저는 영국을 사랑하고, 영국은 초희를 그리워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여화정이었다는 것을 늦게 안다. 그 감정이 고스란히 잘 드러났기 때문에 관계가 잘 보이지 않았나 싶다. 누군 좋아하는 감정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민아와 '내일 그대와' 이후 재회...시간 흘러 더 깊어진 배우

이봉련은 이번 작품으로 tvN 드라마 '내일 그대와'에서 만났던 유제원 감독, 신민아와 재회했다. 그는 '내일 그대와'에서 신민아의 친구로 등장했다.

"감독님이 걱정 없다고 말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온 것 같아요. 신민아씨를 그때 처음 만났는데, 당시 제가 드라마 하는 자체가 긴장과 모험의 연속이라 정신이 없었는데, 다시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더 편해졌고, 이 친구가 몇 년 더 시간이 흘러서 더 깊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홍두식 역의 김선호에 대해서도 "선호씨는 연극 무대로 시작해 알고 있는 동생인데, 작업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왜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지 얘기를 나눴다. 이 친구와 무대에서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차정화, 조한철, 김영옥 등 공진마을 사람들의 케미도 눈길을 끌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신에서도 배우들 모두 케미가 잘 어울렸다. 그게 고스란히 드라마에 드러나서 사랑받는 비결이 아니었나 싶다"고 밝혔다.

남편인 배우 이규회도 응원을 많이 해줬다고 전했다. "본방송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항상 TV를 켜놓고 제가 집에 없어도 봐줬어요. 부러워하면서 이런 따뜻한 드라마에 아저씨 역할로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죠. 제가 최고라며 항상 응원해줘요."

'갯마을 차차차'는 특별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드라마, 영화를 한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은 역할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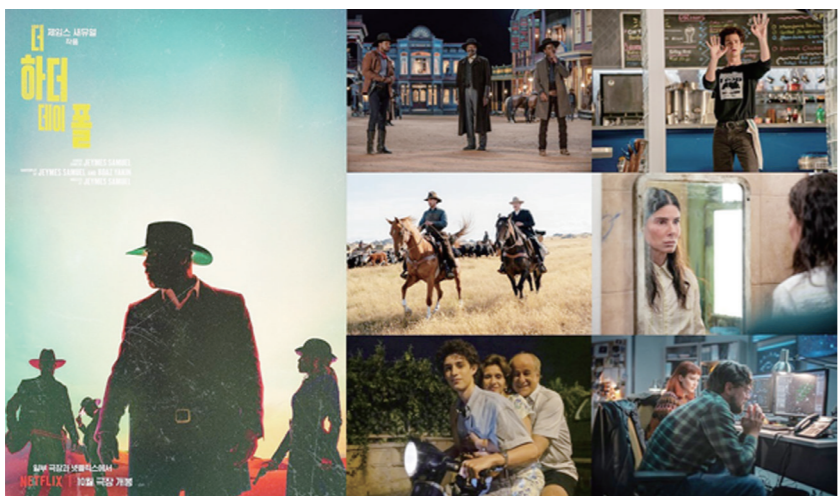


은 역할로서 저라는 배우를 기억해주는 첫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스위트홈', '런 온'을 시작으로 이번 작품에서 더 많은 분이 알아봐 주셨죠. 시청층이 넓어서 어르신들도 제게 인사해주시더라고요."

사람만'으로, 시청자들을 또다시 만난다.

"기본 좋은 한 해예요. 백상 수상이 좋은 출발이었고 열렬했었는데, 얼마 안 돼 '갯마을 차차차'까지 준비했죠.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묵묵히 해왔는데 결과물이 주어졌고, 부담도 났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힘을 얻었죠. 전성기가 맞네요.(웃음)"

'돈 룩 업' 등 넷플릭스 영화 6편 극장서 먼저 본다



넷플릭스 영화의 극장 개봉이 이어지고 있다.

CGV는 올해 말까지 '더 허더 데이 폴' 등 넷플릭스 영화 6편을 CGV를 비롯한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진행된 한국영화 특별전에 이은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CGV가 이들 영화의 배급을 맡았다. 해당 영화는 넷플릭스 공개에 앞서 극

장에서 먼저 선보인다.

20일 개봉하는 서부 영화 '더 허더 데이 폴'은 속적 루퍼스 박이 출소한 사실을 알게 된 서부의 무법자 넷 러브가 미워했던 복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흠뻑 젖은 팀을 모아 그의 뒤를 추격하며 벌어지는 활극을 담았다.

뮤지션 제임스 새뮤얼의 연출 데뷔작으로, 제작에도 참여한 합작 뮤지션

CGV 배급 맡아

제이 Z가 음악을 맡았다.

앤드류 가필드가 출연하는 뮤지컬 영화 '틱, 틱... 뚝!', '피아노'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제인 캠피온 감독이 12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파워 오브 도그', 산드라 불룩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장르의 '언포기버블'은 11월에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12월에는 이탈리아 가장 감독 파올로 소렌티노의 신작 '신의 손'과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메릴 스트리프, 케이트 블란쳇, 티모테 샬라메 등이 스타 배우들의 총출동하는 '돈 룩 업'이 개봉한다.

CGV는 이번 넷플릭스 영화 극장 개봉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원하는 영화를 2편부터 6편 모두까지 선택해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패키지를 선보이고, 각 영화의 배지와 미니 포스터 카드도 구성된 리미티드 굿즈 더 스페셜 패키지도 판매한다.

서수남 "가출 아내 빛에 당뇨까지...사형 선고였다"



가수 서수남이 당뇨병 투병 당시를 떠올렸다.

서수남은 17일 오후 방송된 MBN '대한민국 1% 건강청문회'에 게스트로 출연해 "22년 전에 당뇨병을 선고받았다"고 돌아봤다.

소리 없는 시한폭탄 '당뇨병'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 서수남은 건강 관리를 시작한 지 약 20년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0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전 아내가 빛 16억을 남기고 가출한 사건을 언급했다.

'건강관리' 약 20년 돼

빛을 갖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던 그는 "눈만 뜨면 들어 오고 교실에 나가고 파김치가 돼 들어 오고 그랬다.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양이 많지 않고 운동은 안 해서 당뇨 진단을 받았다. 나는 사형 선고받았다고 생각했다. 당시 50대 후반이었는데 나도 성인병에 들어서거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서수남은 몸 관리 이후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젊었을 때는 허리가 30인치 정도였다"며 "그런데 50대 들어서면서 허리가 38인치까지 늘었다. 울퉁이처럼 배만 나왔었다. 지금은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혜중', 송혜교·장기용 '눈부신 케미' 티저 3종

내달 12일 첫 방송

송혜교, 장기용의 설레는 케미가 공개됐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이하 '지혜중') 제작진은 18일 티저 포스터 3종을 공개했다.

먼저, 첫 번째 포스터는 '헤어짐'을 연상시킨다. 누군가가 태운 송혜교의 흑백 사진과 커플링은 모두 '이별'을 떠오르게 한다.

두 번째 포스터는 '추억'을 암시한다. 손을 잡은 채 활짝 웃는 송혜교와 장기용의 모습에서는 다정함이 느껴진다.

마지막 포스터는 '사랑의 시작'을 보여준다. 연인 송혜교의 사진을 찍어 주는 장기용의 모습에서 시작하는 연



인들의 떨림이 느껴진다.

헤어짐부터 시작까지 역순으로 배치된 포스터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SBS 새 금토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미스터리' 제인 작가, '낭만닥터 김사부' 이길복 감독의 만남으로 내달 12일 첫 방송된다.

'이터널스', 내달 3일 개봉 ...마동석→줄리 포스터 공개

10종 캐릭터 포스터 공개

영화 '이터널스'가 오는 11월3일 개봉을 확정했다.

18일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는 이 같은 개봉 소식을 알리며 '이터널스'의 10종 캐릭터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에는 캐릭터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마동석, 안젤리나 졸리, 켈리 리처드 매든, 셀마 헤이엑 등 배역을 맡은 배우들의 얼굴이 그려졌다.

'이터널스'는 MCU의 새로운 미대를 열 작품이다. 수천 년에 걸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불멸의 히어로들이 '어벤저스: 엔드게임' 이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태반안츠'에 맞서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특히 '부산행', '범죄도시' 등을 통해



인기를 누린 배우 마동석이 '길가메시' 역으로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

또 '노매드 랜드'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및 감독상 수상, 제

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작품상 및 감독상 수상, 제77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등을 받은 클로이 자오 감독이 연출을 맡아 눈길을 끈다.